

차은우 “아이돌+연기 둘다 잘하고 싶은 난 욕심쟁이”

종영 ‘여신강림’서 냉미남 ‘이수호’ 역할

“외모 칭찬, 감사하면서도 쑥쓰러워”

“현재 아스트로 컴백 준비에 매진중”

“연기와 아이돌 병행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욕심쟁이라서 그런가, 둘 다 잘하고 싶어요.”

그들 ‘아스트로(ASTRO)’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는 “연기하는 것도 재미 있고, 아이돌 무대도 재미있다”며 가수 배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tvN 수목극 ‘여신강림’ 종영 기념 온라인 인터뷰로 만난 차은우는 “사실 ‘여신강림’이 종영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난다”며 드라마에 푹 빠졌던 모습을 전했다.

지난 4일 종영한 ‘여신강림’에서 남 모를 상처를 간직한 냉미남 ‘이수호’로 변신, 호평 받았다.

원작 웹툰의 드라마화 전부터 ‘이수호=차은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화제가 됐다. 방영 후에도 만화 속 캐릭터가 그대로 나온 듯한 ‘반짇별’ 호평을 들으며 안방극장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차은우는 “사실 웹툰을 잘 몰랐는데 ‘아스트로’ 멤버들이 나랑 비슷한 웹툰 속 캐릭터가 있다고 해 여신강림 속 이수호를 처음 접했다”며 “신기하게도 1,2주 있다가 드라마로 제작된다고 캐스팅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수호로서 행복했다”는 그는 수호역을 위해 ‘눈’에 중점을 많이 두고 연기했다고 밝혔다. “수호의 서사를 푸

는 데 있어 가장 포인트는 눈이었던 것 같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눈을 통해 친구의 죽음이나 아버지와 갈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실제 수호와의 싱크로율을 묻자 “반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수호는 너무 멋있는 친구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 연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저도, 수호도 운동을 좋아한다는 점은 똑같았던 것 같다. 극중 정통 주짓수는 아니었지만 기술 같은 걸 간접적으로 익히다보니 흥미도 생기고, 액션도 재미있었다.”

“수호 역에 차은우 말고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했다. “가장 뿌듯하고 좋았던 반응이에요. 그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에게 있어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요?”

“여신강림”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은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여신강림”은 외모 콤플렉스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차은우에게도 외모 콤플렉스가 있을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통통했다. 또 축구, 농구를 좋아해서 햇볕 아래

서 타는 줄 모르고 놀다보니 여름엔 까부잡잡해지고 겨울엔 하얘지고를 반복했다. 외모 콤플렉스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족들과 종종 옛날 사진들을 보며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한다.”

극중 임주경(문가영 분)에게 불러준 애교 만발 ‘오펜케 송’이 화제가 됐다.

그는 “대본을 보고 쑥 놀랐었다. 실제 촬영까지 배우들끼리 놀리고 장난도 많이 쳤다”며 “쑥 많이 부끄러웠는데, 여러 테이크를 갔다. 그 당시에는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지나간 느낌”이라고 했다.

“손오공 하트 두개 만드는 걸 혼자 연습하고 촬영 때 쑥쑥했었는데 아무도 캐치를 못했었다. 하하. 평소 애교가 많은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문가영과는 원래 알던 사이여서 어색하지 않아 금방 몰입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 본 사람이었으면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을텐데 아는 사이라 빨리 집중할 수 있었다”며 “키스신이나 애정신은 수호로서 생각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황인엽과는 “정말 재미있게 촬영했다. 특히 후반부 가서는 서로 장난치는 부분이 많았다”며 “애드립도 많고, 티격태격 투닥투닥 하며 서로 ‘찜찜이’라 부르기도 하고, 호흡이 좋았다. 즐거웠다”고 전했다.

2014년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2016년 ‘아스트로’로 데뷔했다. 아이돌 활동과 함께 드라마 ‘최고의 한방’, ‘복수노트’, ‘내 아이다는 강남미인’, ‘신입사관 구해령’ 등에도 나왔다. 현재 SBS 예능 ‘집사부일체’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배우는 캐릭터로 보여지다 보니 좀 더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또 상상하는 걸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며 “아이돌 활동은,

저도 있지만 멤버들도 있어서 팀으로서의 모습을 중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가수를 할 때는 자투리 시간에 드라마, 영화를 보며 연기에 대한 생각을 한다. 연기할 때는 무대 영상을 보면서 가수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렇게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며 지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가수, 배우 두 가지 다 매력적이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다. 그는 “가수는 무대 위에 오면 팬들의 환호성이나 박수 등 반응이 바로 오는데 연기는 온에어 이후 피드백이 있지 않나”라며 “가수는 ‘혹’ 들어오고, 배우는 ‘스으옥’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웃었다.

“연기와 아이돌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연기할 때도 재미있고 아이돌 무대도 재미있다. 욕심쟁이라서 그런가, 둘 다 잘하고 싶다.”

“아이돌 출신이어서 보는 시선은 다 다를 수 있다”며 “거기에 너무 연연하고 신경쓰다기보다는, 캐릭터에 맞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려 한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 멋진 차은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 여신강림도 스물넷의 차은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다양한 연기 도전을 계속하고 싶다. “여신강림을 통해 학원물이지만 대체로운 장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봤다”며 “다음 작품으로는 코미디나 액션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얼굴 천재”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외모 칭찬이 빠지지 않는다. 그는 “기



분 좋고,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기도 하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다. 외모 칭찬을 즐긴다는 것 같다”고 쑥스러워 했다. ‘아스트로’의 유닛 활동도 해보고픈 마음이다. “문빈&산하” 유닛을 보면서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스트

로 색깔도 있지만 유닛은 또 다른 색깔이 있는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유닛 활동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단 지금은 아스트로 컴백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곧 컴백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자)아이들’ 수진, 학폭 의혹…소속사 ‘사실 파악 중’

그들 ‘(여자)아이들’ 멤버 수진이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자기 동생이 수진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19일 인터넷 게시물에 “(여자)아이들 수진 ‘학폭’ 드디어 터트릴 때”라며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어 “나도 가해자 한명 빼고 다른 멤버들에겐 죄송할 따름이지만 내 동생이 받았던 시간을 더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수진이 화장실에서 자신의 동생과 동생 친구들을 불러다 서로 뽀뽀를 때리게 하고 자기 동생은 ‘왕따’라는 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리해 올리겠다”는 A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해도 풀리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수진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수진은 남의 교복을 뺏어 입고 돈을 갈취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오펜

들과 음주와 흡연을 했었고 주장했다. 수진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1일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박유천, ‘악에 바쳐’ 주인공…7년 만에 영화계 복귀

오는 22일 첫 촬영 돌입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독립영화로 영화계에 복귀한다.

18일 소속사 리씨엘로 따르면, 박유천은 최근 독립 장편영화 ‘악에 바쳐’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오는 22일 첫 촬영에 돌입한다.

박유천 측은 “찾아주시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 상업영화에도 출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박유천의 영화 복귀는 지난 2014년 ‘해무’ 이후 7년만이다.

다만 2017년 영화 ‘투시드 드림’ 특별 출연으로 얼굴을 잠깐 비춘 적이 있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자 은퇴를 결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결국 혐의는 사실로 밝혀졌으나, 은퇴는 반복했다.

지난해 1월 태국 팬미팅을 시작으로 활동 재계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에는 솔로앨범 ‘리:마인드(RE:mind)’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갯세븐 유겸, 박재범 품으로…AOMG와 계약

‘프랜차이즈’에 맞춰 춘 댄스 비주얼 영상 공개

그들 ‘갯세븐’ 유겸이 힙합가수 겸 프로듀서 박재범 품에 안겼다.

박재범이 이끄는 AOMG는 19일 “유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공식 채널에 통해 유겸이 트래비스 스콧의 ‘프랜차이즈(FRANCHISE)’에 맞춰 춤을 추는 댄스비주얼 영상을 공개했다.

AOMG는 수장인 박재범을 비롯 사이먼 도미닉, 로고, 그레이(GRAY), 우원재, 코드 쿤스트 등 인

기 힙합·R&B 아티스트들이 대거 소속된 레이블이다.

특히 박재범은 유겸이 몸 담았던 JYP엔터테인먼트 출신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JYP가 발굴한 갯세븐은 2013년 먼저 선을 보인 프로젝트 듀오 ‘JJ 프로젝트’ 멤버인 JB와 진영을 중심으로 보컬 영재, 막내 유겸, 타이완계 미국인 마크, 태국인 뱀뱀, 홍콩 국가대표 펜싱선수 출신 잭슨 등으로 구성됐다.

2014년 데뷔 이후 2PM을 잇는 JYP의 간판 보이그룹으로 활약해 왔다. 3세대 K팝 대표 보이그룹 중 하나다. ‘니가 하면’ ‘하드캐리’ 등의 히트곡을 냈다. 하지만 올해 초 멤버 7명 전원과 재계약이 불발됐다.

현재 멤버들은 새로운 소속사에 속속 동지를 들고 있다. 앞서 진영은 배우 중심의 BH엔터테인먼트, 영재는 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와 계약했다. 잭슨의 레이블인 ‘팀 왕(Team Wang)’은 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트레저 지훈·NCT 성찬·아이즈원 안유진, 인기가요 새 MC

다음달 7일 ‘SBS 인기가요’ 생방송서 첫인사 전할 예정



‘SBS 인기가요’의 새 MC로 지훈, 성찬, 안유진이 발탁됐다.

18일 SBS에 따르면 ‘트레저’ 지훈, ‘NCT’ 성찬, ‘아이즈원’ 안유진이 3월 부터 ‘SBS 인기가요’의 새로운 MC로 나선다.

세 MC는 오는 3월 7일 ‘SBS 인기가요’ 생방송에서 첫인사를 전할 예정이

다. ‘SBS 인기가요’의 새 MC로 지훈, 성찬, 안유진이 발탁됐다.

18일 SBS에 따르면 ‘트레저’ 지훈, ‘NCT’ 성찬, ‘아이즈원’ 안유진이 3월 부터 ‘SBS 인기가요’의 새로운 MC로 나선다.

세 MC는 오는 3월 7일 ‘SBS 인기가요’ 생방송에서 첫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NCT’ 성찬은 지난해 NCT 새 멤버로 무대에 오른지 하루 만에 ‘AAA’야

시야 아티스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는 등 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여성 아티스트 누적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대세 걸그룹 ‘아이즈원’ 멤버 안유진은 ‘땀방’이라는 별명처럼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인기가요’ 연출을 맡고 있는 정의승 PD는 “‘인기가요’를 1년여 연출하면서 만난 가수들 중에서 유독 지훈, 성찬, 유진 세 사람을 봤을 때, 비주얼과 무대 매너 등 모든 면에서 싱그럽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던 것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TV를 통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데, 누구보다 이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조합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세 사람은 활동 기간을 모두 합쳐도 만 4년이 되는, 가장 파릇파릇한 MC 조합이다. ‘인기가요’ 시청자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